

린 미얀마 뉴스레터

제 8 호

2026 년 7 월 30 일 (목)

발행 · 법무법인(유) 린 미얀마사무소

“ 린은 미얀마 비즈니스를 압니다 ”

미얀마 국영지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에서 기사 4 건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계열 Nikkei Asia 에서 미얀마 관련 기사 1 건을 발췌·요약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이틀 연속 사상 초유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한국 증시 폭락 사태와 금융당국 수장들의 공개 사과 소식을 특별기획으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재미얀마 한인 기업 및 동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Pilgrims are seen at the Shwezigon Pagoda in the Bagan Ancient Cultural Heritage Zone on the Full Moon Day of Waso.

바간 슈웨지곤 파고다를 찾은 순례객들. 와소 보름날인 지난 7 월 29 일 새벽부터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00 바간, 와소 보름날 맞아 순례객 인파로 북적

Bagan buzzes with pilgrims for Waso Full Moon ·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바간-나웅우 고대문화유산지구가 지난 7 월 29 일 와소 보름날(담마짜까 데이)을 맞아 미얀마 전역에서 몰려든 순례객과 공덕 쌓기 참배객들로 북적였다고 슈웨지곤 파고다 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슈웨지곤 파고다에는 새벽 4 시부터 참배객들이 모여들어 보시, 명상, 호신경 독송 등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민 우 슈웨지곤 파고다 관리위원장은 우안거 기간 문화유산지구 관할 18 개 파고다가 모두 개방돼 참배객들이 공덕을 쌓을 충분한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례객 증가로 마차꾼, 전동스쿠터 대여업, 미니밴 기사, 현지 가이드, 노점상, 기념품 공예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등 지역 경제도 함께 활기를 띠었습니다. 종교 순례객뿐 아니라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려는 관광객들로 호텔·숙소도 분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간 지역에 진출한 한인 여행·숙박업계에도 참고가 되는 소식입니다.

01 미얀마 '아잘레아 스타즈' 무용단, 2026

세계문화무용축제 그랑프리 수상

Myanmar's Azalea Stars Troupe wins Grand Prize at 2026 World Cultural Dance Festival

미얀마를 대표해 출전한 아잘레아 스타즈(Azalea Stars) 무용단이 한국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26 세계문화무용축제'에서 최고상인 그랑프리(Grand Prize)를 수상했습니다. 전통 의상과 화려한 군무로 미얀마의 문화유산을 선보인 이번 무대는 현지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잘레아 스타즈는 2023 년 동상, 2024 년 은상, 2025 년 금상에 이어 2026 년 마침내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거머쥐며 4 년 연속 성장세를 증명했습니다. 세계 17 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미얀마가 최고 영예를 안은 것은 문화 교류 측면에서도 뜻깊은 성과로 평가됩니다. 한류 콘텐츠·문화행사 분야에 관심 있는 한인 기업에는 한-미얀마 문화 교류의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02 쉐꼬꼬·KK 파크 온라인 사기 소굴 건물, 철거 작업 계속

Authorities demolish cyber-scam compounds, levelling 9-storey stronghold

미얀마 정부는 카인주 미야와디 인근 쉐꼬꼬(Shwe Kokko)와 KK 파크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불법 도박에 사용되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부처 팀이 현장에 투입돼 관련 장비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온라인 사기 거점으로 활용되던 9 층 규모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철거 대상으로 지정된 77 개 건물 중 하나로, 이 중 57 개는 중장비 철거, 20 개는 폭파 철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의 사이버 범죄 근절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지역에 진출한 한인 기업은 안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미얀마 도쿄대사관, 공증서류 위조 주의보 발령

Myanmar Embassy in Japan warns of fake notary documents

주일 미얀마대사관은 지난 7 월 24 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위조된 공증서류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며 재일 미얀마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사관은 문서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공증서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대사관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미얀마 관련 공증인증서류 위조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는 만큼, 미얀마 관련 법인설립·투자등록·부동산 거래 등에서 공증서류를 활용하시는 한인 기업 및 동포께서도 서류의 진위 여부를 관련 기관을 통해 재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4 [일본 니혼게이자이] 미얀마의 아세안 복귀, "아직 멀었다"

Myanmar's return to ASEAN fold remains 'far off,' Philippines says · Nikkei Asia, 2026.7.23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일본경제신문 계열)는 마닐라에서 열린 제 59 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의 결과를 전하며, 미얀마 지도부의 아세안 정상급 회의 복귀가 "아직 멀었다"는 필리핀 외교장관 겸 아세안 미얀마 특사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라자로 장관은 미얀마의 '5 개항 합의(Five-Point Consensus)' 이행 여부가 여전히 평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은 이번 회의에서 5 개항 합의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준거 틀로 재확인하고, 군정의 이행 여부를 측정할 구체적 기준(benchmark)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라자로 장관은 올해 4 분기 중 미얀마 내 소수민족 무장조직 관할 지역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방문을 이끌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국제적 입지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대외 교역·투자 환경에 관심 있는 한인 기업들은 아세안 동향을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기획 한국 증시, 사상 초유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금융당국 수장 공개 사과

한국 증시가 창설 이래 최악의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6월 22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9,114.55를 기록한 뒤, 불과 한 달여 만인 7월 28일 6,023.66까지 밀리며 7월 한 달에만 28.94% 폭락, 1990년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7월 29일에는 장중 코스피가 전일 대비 10% 넘게 추가 폭락하며 오후 12시 32분경 매매거래를 20분간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코스닥 역시 같은 날 서킷브레이커가 걸리며 양대 시장에서 이틀 연속(7.28~7.29)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코스피 역사상 전례 없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폭락의 도화선은 지난 5월 27일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상품으로 지목됩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가 급증했고, 이는 하락 국면에서 손실을 배가시키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7월 28~29일에는 중국 반도체 기업 CXMT가 DDR5 메모리 양산 성공과 실적을 전격 공개하면서 '중국발 쇼크'가 겹쳤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9%대 폭락하는 등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덕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덕원 위원장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신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이찬진 원장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점에 대해 지금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만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발 '인재(人災)'라는 야당 지적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전액 현금)으로 상향했으며, 국회에서는 이를 5,000만 원까지 추가 인상하고 레버리지 배율 조정, 증권거래세 부과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국민 방문 중 이번 사태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과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고, 청와대 측은 현지에서 "레버리지 ETF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적 요인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돌아보기 — 대통령의 '탈(脫)부동산·주식시장 활성화' 소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개 발언과 정책 행보를 통해 '부동산 대신 주식 투자'로의 자금 이동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국정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성남 분당의 개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보다 금융투자가 이득"이라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기도 했고, 6월에는 한국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증시 활성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코스피·코스닥 동반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통령의 '탈부동산·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기조가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긴 배경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이번 폭락이 레버리지 상품 등 특정 요인에 따른 일시적 변동성일 뿐 정책 방향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시각 모두 국회와 언론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정부의 보완 대책과 시장 반응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투자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유) 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린

Tel. 09 449191234 | 카카오톡 ID: benice4u
한국 Tel. 010-3358-8080 | 02-3477-8695
www.law-lin.com | www.myanmarlaw.net | Email. kjlee@law-lin.com